

김영록, AI 슈퍼클러스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

NEWS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이언주 최고위원에 국립대 설립 등 지역 현안 건의 석화 산업위기 선제대응·CCUS클러스터 예타 선정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제안하고 국립과과대학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협조를 구했다.

이날 면담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남도에 기존 규제개혁보다 훨씬 더 폭넓게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의 AI 에너지 특구를 제안함에 따라 전남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AI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추진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의 대규모 자본과 글로벌 기술이전이 시급한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의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부펀드 지원 등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함께 성공적 투자유치 과제로서 충분한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변전소 2기 조기 구축 지원, 전기요금 특례, 통신비 인하 등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

을 통한 국가재정 및 세계 지원, 외국인 투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공급관리 및 사업비 지원 등도 협조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역대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극복과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3월께 여수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속 지정되도록 도와줄 것도 부탁했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감가를 인상 전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신단(모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해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인 여수국가신단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신청하고 선정되도록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서울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 중소기업, 동남아 시장 공략 나선다

시, 미국 관세대응...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강기정 시장 위기대응 위한 기업 소통 지속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

광주시는 12일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와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대외 수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가동된 '광주 수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광주상공회의소, 동남아 수출기업 및 수출 희망

기업 ㈜메디덴, ㈜코보텍, ㈜화인특장, ㈜한아, ㈜다움전자, 한세㈜, ㈜금명하이텍, ㈜나인원코스메디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0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 수출 다변화 방향, 정부 및 광주시 수출지원 프로그램 안내, 싱가포르 등 지역제품 홍보관 운영 현황, 동남아지역 수출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 위기극복의 핵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꼽고 미·중 등 세계 주요시장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특히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비관세장벽(통관·인증 문제), 현지 유통망 확보의 어려

움 등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사례 공유와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업들은 "국내 실적 확보, 현지 실증 및 제품·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 활성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이번 간담회처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자"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남방국가로 고개를 돌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며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수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단을 중심으로 산업분야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도지사, 5·18 단체 탄압 '보훈부 규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18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한 보훈부의 폭거를 온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5·18단체 탄압하는 보훈부 규탄 성명서'를 통해 살아있는 민주 정신인 5·18 단체를 탄압하는 보훈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밤 보훈부는 5·18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는 압박 공문을 발송했

다"며 "이는 예산권을 틀어쥔 국가기관의 명백한 압박이자 권한 남용으로, 5·18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보훈부는 5·18 단체들에게 발송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게 가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

해양쓰레기 저감 396억 투입 도, 폐어구 보증금제 등 추진

전남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396억원을 들여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 관리 기반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등 청정 전남바다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12억 원을 투입해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며, 완도와 신안 우심지역에 드론·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시범 추진해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332억 원을 들여 도서,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282명 채용, 항포구 육상·선상 집하장 58개소 신규 설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 지원 등 깨끗한 바다가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해양오염피해물 수거 처리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합평만 정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해 연근해 어장환경을 개선한다.

해양환경공단과 협력해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을 목표항에 이어 광양항까지 확대 설치해 해양쓰레기 재활용률도 높인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개조전기차 상용화...고속주행 테스트 조향성능·직진주행성·제동능력·배터리안전성 등 검증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조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고속주행 테스트에 본격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주행 테스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안전성확인시험에 앞서 개조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안정성을 종합 평가하는 사전 절차다. 도로주행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11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붕고, 소나타 등 2대에 대한 개조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체 시험 주행을 했다. F1경주장 상설 코스(3.045km)를 시속 40km에서 100km로 반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조전기차의 조향성능, 직진주행성, 코너링, 가속, 제동능력 등 차량의 주행 안정성과 성능을 확인했다. 또 고속주행 시 배터리의 부하, 모니터링 플랫폼 작동 상태 등 향후 진행될 전력소비량 측정과 안전성확인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고속주행 테스트를 마친 개조전기차는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확인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안으로 안전성확인시험을 완료하고, 목표-



영암-해남 도로구간(3000km)에서 왕복 주행 실증을 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개조전기차 사업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7년까지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운전면허학원 431곳을 대상으로 개조전기차를 보급하고, 이후 택시·화물·운송차량과 중·고차 수출 등으로 산업화에 일차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2년 지정돼 영암·목포·해남 일원에서 차량의 전기차 개조와 주행안정성 실증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총 157억원(국비 92억원, 지방비 46억원, 민간 19억원)을 투입해 ㈜라라클래시모터스 등 6개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실금기

스탠드 공기청정실금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공기청정실금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쿠팡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